

<교육실습 후기>

담당교과 : 컴퓨터 일반

담당학급 : 1-4

-서울 문화고등학교 실습을 마치고-

[서울 문화고등학교에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된 계기]

저는 남고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모교 보다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학교에 교육실습을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처음에는 여고에 교육 실습을 신청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남녀공학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 연락을 하였다. 여러 고등학교에 연락을 하던 도중 서울 문화고등학교에서 면접을 보자는 말을 들었고 제 친구인 함웅규 학우와 함께 서울 문화고등학교 교육 실습에 지원하게 되었다.

서울 문화고등학교는 1993년 도봉 상업 고등학교로 설립되어 2008년 문화 콘텐츠 관리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문화 콘텐츠 관리에 특화되어 전공이 디지털 콘텐츠과, 디자인과, 연예메니지먼트과, 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우리 교육 실습을 나간 교생 선생님들도 컴퓨터 전공을 비롯하여 경영학과, 연극 영화 전공으로 다양하였다. 이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 전공이 국영수가 아닌 컴퓨터, 회계 등의 과목이 주요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학부생 보다는 교육 대학원 생들이 많이 있었다.

[실습 나가기 전]

교육 실습을 나가기 몇 주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러르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기껏해야 과외와 학원에서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동 밖에 없었는데 과연 내가 30명이나 되는 학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아무래도 전공이 컴퓨터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 나보다 잘하는 학생을 만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앞서기도 하였다. 이에 나는 3월 개강을 하고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 계획을 해보고 관련 전공 서적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교육 실습을 준비하게 되었다. 실습 1주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보니 내가 맡은 학년이 1학년 이고 과목도 컴퓨터 일반이라 전반적인 상식 수준의 컴퓨터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4월에 미리 교생실습을 다녀온 친구들의 격려를 받고 나니 실습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서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와는 전혀 반대의 성향을 가진 학교이다 보니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실습을 준비하였다.

[교육실습 1주차 : 학생들은 수련회를 떠나고 3일간 연수를 받다.]

5월이 되어 드디어 교육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7시 50분까지 출근이라 6시에 일어나서 양

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었다. 양복을 처음 입다보니 서툴렀고 넥타이도 이상하게 매어서 하마터면 첫 출근부터 지각을 할 뻔 했지만 다행히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서 지각은 면했다.

이번 주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각각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가서 3학년 학생들만 학교에 남아있었다. 그렇기에 학교는 매우 한적했고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 모습만 구경하였다. 이를 차부터는 교장선생님의 강의로 시작하여 교감선생님의 강의, 교무부장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 등 각 부장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회 준비를 도와주었다.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학교에서는 진학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3학년 학생들도 전원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의 고3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흐뭇하였고 같이 축구를 하며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예상외로 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다.

[교육실습 2주차 : 내 담당 학생들을 처음 만나다.]

다른 학교보다는 1주일 늦게 내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조례 때 학생들과 만나고 보니 매우 풋풋하였고 내 동생 생각이 나서 매우 반가웠다. 아직 어색한 기운이 돌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모르다 보니 말을 걸기 쉽지 않았지만 내 담당 학생들이란 생각에 매우 기뻐다.

이번 주에는 내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칠판이 없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 칠판에 적는 식의 수업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하고 이를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대학교 학부에서 내가 배우는 방식의 수업을 고등학생들이 듣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동을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다른 교실로 이동하느라 바빴다. 생동감 있는 모습이 좋았고 교실마다의 특성을 통해서 각 교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지만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동하다 보니 수업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많이 있어 보여 대안이 필요해 보였다.

이번 주 금요일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체육대회라 오랜만에 양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출근을 하니 기분이 상쾌했다. 체육대회 전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고 이어서 각 학년 과대표 들이 모여서 승부를 겨뤘다. 나는 5교시에 열릴 교사 대 학생 축구 경기에 교생 대표로 차출될 예정이라 축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간단한 축구 경기를 하며 몸을 풀었다. 이윽고 축구 경기가 열렸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십대인 학생들의 패기를 선생님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후반전이 되자 학생들이 스승의 날 기념으로 선생님 팀에 봐주기 식의 축구를 하면서 승부의 추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마지막 추가시간에 골대 앞에서 크로스를 받았는데 이를 헛발질해 놓쳤다. 다행히 옆에 교무부장님이 계셔서 선생님께서 골을 넣으셨고 나의 헛발질은 어시스트로 인정되었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 반 학생들은 왜 내가

골을 넣지 않고 어시스트를 했냐고 물었다. 나는 헛발질 했다고 말하기 민망해서 교무부장님께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교생 선생님들끼리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함께 땀을 흘리고 마시는 자리인지 간만에 맛있는 회식 자리가 되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반 학생들 앞에서 조회와 종례를 맡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말들을 생각해서 가도록 해야겠다.



[교육실습 3주차 : 조회 종례를 맡다.]

이번 주 부터는 내가 맡은 1-4반의 조회와 종례를 내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 앞에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청소를 지도하다 보니 학생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하였고 또 자신감도 생겼다. 또한 조회와 종례를 하다 보니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학생들 지도도 하게 되었고 학생들 몇 명을 모아 먹을 것을 사주면서 상담을 하였다.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았고 관심을 요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 기념으로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학생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되니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학생들에게 1주일간 실수도 많이 하고 제대로 신경써주지 못해서 다른 교생 선생님들 및 담당 선생님께 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본교를 방문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홍보 수업을 참관 및 진행하였는데 이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팀티칭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 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나서서 학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미리 방문하여 자신의 진로를 미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미리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진로를 위해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교육실습 4주차 : 처음 해본 실제 수업과 학생들과 이별]

어느덧 교육실습 마지막 주차가 되었다. 아직까지 수업 한 번 안해 보았고 학생들과 친해지지 못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라고 하니 너무 아쉬웠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우리 반 학생들 수업에 따라다니면서 참관을 하였고 수업 준비도 철저하게 하였다.

실제 수업을 하다 보니 가르치는 직업이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이 수업 시간을 맞추는 것이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 학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학생에 맞춰서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반마다, 과마다 학생들의 수준차가 나서 수업을 하는 학급마다 수업 시간이 달라졌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랐기에 이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고 이에 따라서 시간 조정하는 방법과 학생들과 호흡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워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에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하나씩 전달하였는데 눈물이 내려하였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가 남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 노력했던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 뿐인 교생 생활을 함께 해준 지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교육 실습을 마치게 되었다.



[교육실습을 마치며]

4주라는 짧은 교육 실습이 끝나고 후기를 쓰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사범대 학생으로서 학부 생활의 하이라이트인 교육실습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내 인생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남들을 이끌고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실습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 오히려 남들 앞에 서게 되면 몸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실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대판 깨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나를 다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진로에서 남들 앞에 설 일이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이 기억을 되새기며 남들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써 교감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말이었는데 이번 교육 실습을 통해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평소 논어를 즐겨 읽던 나에게 이 경구는 눈에는 익은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교육실습 기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니 이 경구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교육실습을 나가서 쉬는 시간과 퇴근 후 독서 및 공부를 하려고 하였지만 쉬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늘어지게 되었고 공부는 뒷전으로 내팽개쳐졌다. 4주가 흐르고 나서야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공부를 하였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중에 다른 직장에도 가더라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연사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발표를 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발표의 구성과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내 담당 학급이었던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정말 좋은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4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정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동료 교생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4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했다. 이번 실습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인생 한 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책갈피가 될 것 같다.

